제2우주센터·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전력투구'

고흥군, 인프라·전문인력 등…중복투자 최소화
공영민 군수 "우주 랜드마크·스타베이스 거듭"

고흥군이 '한국형 스타베이스'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가칭)'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제2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국가 우주 정책의 연속성과 인프라 집적화다.

현재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제2우주센터가 고흥에 들어설 경우, 이미 구축된 고도의 인프라와 전문인력, 운용 경험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와 유인 임무에 대비한 고빈도 발사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기존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는 발사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발사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흥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간 기상 양호일이 250일 이상으로 안정적인 발사 운용이 가능하며, 지진이나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다는 점은 이미 나로우주센터 입지 선정 당시 충분히 검증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여기에 전국 유일의 우주센터를 조성하며 축적된 행정 경험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그리고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은 제2우주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다.

군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기관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대전과 경남에 비해 발사체 거점인 전남(고흥)에만 전담 지원 기관이 없어 산업 육성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발사체산업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흥은 발사체산업 특구로서 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러한 고흥의 잠재력과 유치 노력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군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해 대한민국 우주 삼각축의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영민 군수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미 우주 인프라가 구축된 고흥에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국가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길이다"며 "제2우주센터와 진흥원 유치로 고흥을 글로벌 우주 랜드마크이자 진정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흥~광주 고속도로, 고흥과 녹동을 잇는 철도 노선 등 3대 교통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며 국가 우주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화순 사평빨래방, 생활밀착 복지모델 '자리매김'

전년대비 이용률 194% 증가
군민 대상 '위생·신뢰' 중점

화순 전 군민을 위해 조성한 '화순 사평빨래방'의 지난해 이용률이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형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순 사평빨래방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로, 농촌 지역 특성상 대형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일반 군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설은 214.8㎡ 규모의 작업장과 별도 외부 건조장을 갖춰 하루 평균 150채에서 최대 200채의 이불 세탁이 가능하다.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특정 계층을 넘어 군민 전체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정 운영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시설 구축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을 활용하고, 운영에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보조금을 연계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최소화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화순 사평빨래방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로, 농촌 지역 특성상 대형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일반 군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진은 '화순 사평빨래방' 시설 모습.

군은 빨래방 운영 초기부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생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해 세탁 전 과정을 공개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소통은 주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추가 이용 수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주민 요청을 반영해 이불 세탁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됐다. 마을별 연 4회 제공하던 서비스를 6회로 늘린 결과, 2024년 9565채였던 이불 세탁량은 2025년 1만8570채로 증가했다. 이용 가구 수 역시 같은 기간 3920가구에서 7574가구로 늘어나 190~195%에 달하는 이용률 상승을 기록했다.

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화순 사평빨래방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더욱 꼼꼼한 운영과 위생 관리로 군민들이 화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해남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역대 최대 매출

지난해 274억 달성…지자체 혁신모델 우뚝

해남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2025년 매출로 27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242억여원)에 비해 32억원(13%) 이상 증가했다.

소비위축으로 대형 유통채널 등도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같은 성장세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운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주요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남배추의 전국적인 명성에 힘입은 절임배추가 114억7200만원을 판매해 전체 매출의 약 4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45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해남미소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 잡곡 품목이 뒤를 이어 57억9000만원, 각종 가공식품이 52억3000만원, 고구마 13억1500만원, 채소품목이 12억78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이 대부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남미소를 통한 판로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미소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자체 직영 쇼핑몰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유통·마케팅·고객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고객 응대, 주문·배송 관리, 상품 품질 관리를 일원화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왔다.

또 생산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남미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기와 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할인 및 기획전을 통한 합리적 가격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객단가 상승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운영 역량과 콘텐츠 경쟁력이 결합되면서 해남미소는 단기적인 이벤트 중심의 판매를 넘어 지속가능한 매출 성장 구조를 구축했고, 매년 최대 매출 경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농어민들의 정성과 농어촌수도 해남을 믿고 찾아주신 전국 소비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해남미소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나주시가 남평읍을 시작으로 2026년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남평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인 모습.

나주, 병오년 새해 '주민과의 대화' 시작

주민 목소리 경청·현장 중심 소통 행정 구현

윤병태 나주시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남평읍에서 시작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남평중학교 체육관에서 병오년 새해 첫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주민과의 대화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와 시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주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윤 시장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시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했다.

행사는 오시근 남평읍장의 읍정보고를 시작으로 읍면동정과 주요 지역개발사업 공유,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장 도시, 명품 교육도시, 청년 행복 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행복한 나주로 구성된 5대 중점 추진 분야와 남평읍 주요 지역개발사업 및 현안 사업을 설명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배수로 정비, 도로 확·포장 등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건의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윤병태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 속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추진 상황을 주민들께 공유하는 등 알권리를 보장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평읍을 시작으로 진행된 2026년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 임신·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임신 준비 부부에 엽산제 지원

광양시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 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부부가 함께 엽산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경관 결손 등 태아 기형과 조산을 예방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여성이 49세 이하이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3개월분 엽산제를 연 1회 지원한다. 사업은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지원하는 엽산제는 의약품으로 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엽산은 수정 후 4주 이내 형성되는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관 결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 이후 엽산제를 지원해 임신 준비 단계 부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복용해 왔다. 시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단계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주·야간 임산부 교실을 비대면까지 확대 운영했다. 시는 올해 엽산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촘촘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